

생각하는 성도가 되자

(로마서 8:5,6)

김 병 덕

- 우림교회 담임 목사
- 본협회 감사 역임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롬 8:5,6)

파스칼은, “인간은 갈대이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이다.”라고 했고, 데칼트는, “나는 생각하는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바둑 한 수를 두어도 심사숙고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육신의 일보다도 영의 일을 생각하며 생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에는 “생각하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위엿 것을 생각하라.” (골 3:2),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 3:1),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 4:8) 이렇게 생각할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소금으로 간을 맞추지 아니하면 그 맛을 잃고 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간을 맞추듯이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소금입니다.

신앙 생활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집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생활과 연결된 신앙 생활입니다. 이는 곧 신앙 생활의 구체화입니다. 신앙 생활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지혜자는 영의 생각이 우선 순위입니다. 이는 신자의 마음가짐의 방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으며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 있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성도의 생활은 우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義)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바로 사는 생활이지 잘 사는(육신이) 생활이 아닙니다. 좀 못 살아도 좋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1.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 주셨다는 고마운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44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16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하셨으며, 에베소서 1:4,5에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사 친히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넘치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나 자신의 주관적인 의지(意志)나 결심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불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으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엡 2:8).

이와 같은 생각이 먼저 있을 때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고 겸비와 순종과 충성이 따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고백하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고전 15:8),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 1:5), “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던(딤후 1:13) 자기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 사도의 직분까지 주셨으니(갈 1:1, 엡 1:1) 이 모두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고전 15:10)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 같은 죄인을 불러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2. 내가 받은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의 황제요 철학자(스토아 학파)이기도 한 마르쿠스 나우렐리우스, 곧 안토니누스(Antoninus)는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생각이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축복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소유가 만족할 때, 또는 명예, 직업, 자녀, 건강 등등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면 축복 받은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합니다. 그러나 축복 중 제일 큰 축복은 죄로 말미암아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름을 받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옛날 노아는 당대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 받은 사람입니다. 그 가족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 받은 유일한 가족입니다. 그는 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 포도로 빚은 술에 만취가 되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심지어 자식(함)을 저주하되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게까지 한, 일대 과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술은 생각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케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지 않고 술과 같은 육체의 향락에 도취되면 절제와 경건을 잃고 비참한 경지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신호보다 청신호가 더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은 배울수록 겸손하고 신앙은 깊을수록 겸손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축복을 몰라도 안 되지만 그 축복에 취해서도 안 됩니다. 즉, 그 받은 바 축복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축복은 생각지 않고 남이 받은 축복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랑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행복의 비결을 두 가지로 말했는데 첫째는 소유물을 늘이는 일, 둘째는 욕망을 버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유를 늘인다 해도 욕망은 끝이 없고, 버린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행복(자족)의 비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빌 4:11~13). 즉,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알게 될 때 감사가 나오고 항상 만족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이미 내가 받은 축복을 제일 큰 축복인 줄 알고 타인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하다보니까 내게 임한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이미 받은 축복마저도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는 오직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이 받은 바 축복을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서(시 116:12) 살 때에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자족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3. 하나님이 나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살후 3:2(하반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 받게 하고 축복으로 이끌고 가는 믿음이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즉,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만의 것이란 말씀입니다. 선택 받은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2:8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의 선물은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 역시 선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생각하니 너무도 감사하고 보배로운 것인 만큼 잘 간직해야 될 줄로 압니다.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금으로는 구원도 천국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고, 동시에 천국도 소유케 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부자도 되고, 병도 낫고,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믿음은 또한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마 16:16~19). 이 천국 열쇠를 주님께로부터 받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열쇠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마 9:29)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안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 저와 같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믿음의 열쇠, 아니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였은즉 그 어떤 보화보다 값진 축복을 소유한 자들이란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육신을 좇는 생각을 초월하여 생명과 평강에 이르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고마움을 항상 생각하고, 내가 받은 축복이 제일 큰 축복임을 생각하고 자족하며, 천국의 보고를 여는 열쇠요 만능의 열쇠인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승리하는 생활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